J. Fd Hyg. Safety
Vol. 24, No. 4, pp. 291~298 (2009)

Journal of Food Hygiene and Safety
Available online at http://www.foodhygiene.or.kr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소비자 교육 컨텐츠 개발 및 교육효과 조사 -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대생 중심으로-

정지인 · 강은진 · 조미영[1] · 최계선[2] · 홍영표[1] · 서갑종[1] · 김건희*
덕성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1]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과, [2]식품의약품안전청 임상제도과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Consumer Educational Contents on Safety Management of Imported Foods for Female College Students in Seoul

Jiin Jung, Eun-Jin Kang, Mi Young Cho[1], Gye-Sun Choi[2], Young-Pyo Hong[1], Kab Jong Seo[1], and Gun-Hee Kim*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132-714, Korea
[1]Division of Food Import,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eoul 122-704, Korea
[2]Division of Clinical Trials Management,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eoul 122-704, Korea
(Received June 6, 2009/Revised September 18, 2009/Accepted November 20, 2009)

ABSTRACT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consumer recognition with regard to the safety management for imported foods.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prgram on consumer education, the program was practiced for 89 female college students in Seoul, Korea. The participants were given an instruction with materials on imported food safety, including the safety management of imported foods and their distribu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achieved a greater understanding of imported foods. In particular, they had firmly grasped the importance of expiration date in selecting imported foods. Before the instruction, 50.6% of total participants blamed the Korean government for the problems arising from imported foods; only 18.0% placed the blame on individuals or businesses importing from foreign countries. After the instruction, 39.3% had blamed the individuals or businesses importing from foreign countries. Furthermore, 36.0% had disapproved of the foods that are imported from China before the instruction, while 32.6% found objectionable the views on the illegally distributed foods; 29.2% criticized the junk foods that target children (after the instruction). In addition, the level of participant satisfaction via-a-vis imported foods safety supervision had improved from 2.76 ± 1.59(before the instruction) to 3.37 ± 1.58(after the instruc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consumers are concerned with the imported foods that contain adulterated or forbidden substances and the illegally distributed foods from foreign countries. Thus, consistent and informative educational programs on imported food safety could help consumers in choosing safer products, resulting in an improvement in the consumer confidence with respect to imported foods.

Key words: imported foods, safety management, consumer, educational contents

WTO 체제의 출범에 따른 자유무역의 영향으로 세계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외국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매년 수입식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수입품목도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또한 전체 식품수입량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1995년 대비 2007년에 약 3.1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1-2]. 국제 무역 활성화에 의한 수입식품의 대량 유통 등으로 우리의 식생활 중 수입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는 다양한 형태의 수입식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3-5].

이러한 국제간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세계 각국의 식품이 국내에 대량 유입되어 수입식품의 식탁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증산을 위한 인체 위해가능물질의 의도적 사용이 지속되고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포함한 다양한 원료와 가공 및 저장기술로 제조된 수입식품이 증대되고 있다[6-10]. 더욱이 최근 유해식품의 수입 및 발암물질, 살충제, 기형유발 물질 등 다량의 농약과 방사선조사, 성장호르몬 및 항생제 잔류, 유해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발생되고 있다[11-13].

*Correspondence to: Gun-Hee Kim,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132-714, Korea
Tel : 82-2-901-8496, Fax : 82-2-901-8474,
E-mail : ghkim@duksung.ac.kr

수입식품에 관한 소비자들의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여 올바른 구입과 소비가 어렵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와 함께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수준의 향상 및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건강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가 고조되고 소비자들의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의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14-17].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에 의한 사고 다발로 인하여 수입식품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이며 소비자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및 안전도에 대해 소비자의 불안심리가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인식도, 안전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소비자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인식도, 체감도 조사 및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소비자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여 교육·홍보하였으며 이러한 교육 컨텐츠가 수입식품에 대한 범위와 관리체계 및 안전한 수입식품 선택법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의 도구로서 효과적인지를 조사해보았다.

연구내용 및 방법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소비자 교육·홍보를 위한 교육 컨텐츠 및 리플렛을 개발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20대의 여대생 89명을 대상으로 2008년 9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소비자 교육·홍보를 실시하였다. 교육 프로그램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 전·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컨텐츠 개발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효율적인 소비자 교육을 위하여 강의식 교육에 필요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였다(Table 1). 수입식품물량, 교역국 및 품목 등 수입식품현황을 조사하여 설문조사 문항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실태를 파악하여 교육 컨텐츠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요구도가 높은 정보 및 잘못알고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컨텐츠를 구성하였다. 교육 컨텐츠의 내용은 위해수입식품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절차, 수입식품안전관리 기준 및 절차, 수입식품 선택 시 주의사항(불법제품여부 확인 등) 및 불량 수입식품 신고절차 등으로 구성하였다. 위해수입식품 사례 및 대응에서는 최근 문제된 위해 수입식품의 사례와 관리 및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수입식품의 범위와 관리에서는 국내 수입식품의 관리현황과 검사체계에 대해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 및 차트 등을 이용하였으며 올바른 수입식품 선택법에서는 한글표시사항, 표시사항의 제조원·수입원·판매원, 유통기한, 불법유통 외국 위해식품 정보 확인 방법 등을 제시하고 위해식품 발견 시 신고 절차 등의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구성하였다. 교육 컨텐츠 개발 후 소비자 30명을 대상으로 수입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한 뒤 적절성을 평가하여 수정·보안하였다.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홍보 리플렛 개발

수입식품 안전관리 홍보 방안 중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고 다양한 연령대에게 효율적인 홍보가 가능한 홍보용 리플렛을 개발하였다(Table 2). 홍보 리플렛은 교육 컨텐츠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소비자들의 쉽고 빠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확한 정보로 수입식품의 수입절차와 안전관리 기준, 구입 시 주의 사항 및 신고절차 등을 함축하여 구성하였다. 리플렛 개발 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홍보 리플렛의 적절성을 평가한 뒤 수정·보완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 소비자 교육 시에 배포하였다.

조사내용 및 방법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소비자 교육은 개발한 교육 컨텐츠 및 리플렛을 활용하여 강의 형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소비자 교육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지(Table 3)를 개발하여 교육 전·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설문지법을 이용하였다. 설문문항은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토대로 개발하였으며 본 설문조사에 앞서 조사지시안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약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수정·보완하였다.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조사된 자료는 S-Plus 8.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및 분석을 하였다. 각 조사항목에 따라 다중응답분석, 빈도분석, 교차분석, One-Sample T-test 등의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교육 전과 후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입식품 인식도에 관한 교육 전후 변화

수입식품에 관한 소비자 교육 전·후 수입식품 범위의 인식도 변화는 Table 4에 나타냈다. 교육 전 수입식품 범위에 대해 5가지 항목(외국에서 수입되는 가공식품, 수입식품첨가물, 수입 원재료로 제조한 국산 가공식품, 외국에서 제조되어 한국 상표를 붙인 OEM 식품, 외국에서 수입

Table 1. Contents of consumer education in management of safety on imported f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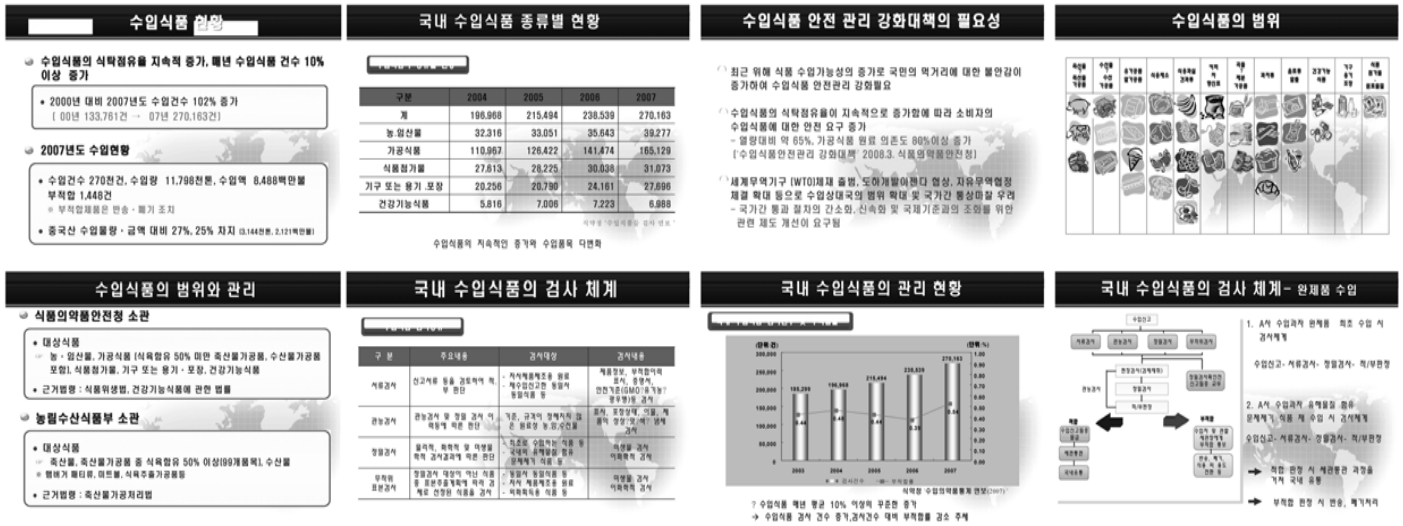
Session	educational contents program
1. The case on hazardous imported foods and tis counterplan	
2. The scope and supervision of imported foods	
3. The method of selection on imported foods	

Table 2. Leaflets in management of safety on imported foods

1	2	3	4	5	6

Table 3. Questionnaire sheet

	Survey content
1	Distinguish the scope of imported foods
2	The most concerned subject when choosing imported foods
3	The great responsibility when imported food safety problems occurs
4	The main concern for the safety supervision of imported foods
5	The priority of improvement on ensure safety of imported foods
6	Satisfaction of domestic foods safety
7	Satisfaction for the government announcement on the imported foods safety information
8	Satisfaction for the imported foods safety supervision of the government
9	Awareness for the imported foods safety supervision of the government
10	Reliability for the imported foods safety supervision of the government

되는 건강기능식품) 중 가공식품이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응답자의 29.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기능식품, OEM 식품, 수입 원재료, 식품첨가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 후에도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도가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OEM 식품, 수입 원재료, 식품첨가물에 대한 응답률 또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hoe 등[1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비자들의 신선식품 구입 시 수입식품인지 국산식품인지를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공식품의 경우에도 원재료가 수입품인지를 고려한다고 응답자의 88.2%가 응답하였다. 또한 주부들의 농산물 구입시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확인 후 구매한다는 사람이 86%로 높게 나타났다는 Lee[18]의 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의 식품 구입 시 수입산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교육 전 소비자가 인식하는 수입식품의 범위가 교육 후 다소 증가하였으며 교육을 통해 수입 식품첨가물(식용색소, 보존제 등)과 외국에서 제조되어 한국 상표를 붙인 OEM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음으로써 소비자가 인식하는 수입식품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전 수입식품이라 인지하지 못했던 품목들에 대해 인식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국산식품과 수입식품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안전한 수입식품 선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수입식품 구입 시 소비자가 가장 고려하는 사항에 대한 분석은 Table 5와 같다. 교육 전 응답자의 58.4%가 원산

Table 4. Distinguish the scope of imported foods(Multiple response)

Frequency content	Pre-education		Post-education		
	frequency	%	frequency	%	
What do you think to the scope of imported foods?					
processed foods	83	29.3	85	25.1	+2(−4.2)
foods additive	37	13.1	51	15.1	+14(+2.0)
imported raw material	43	15.2	65	19.2	+22(+4.0)
OEM foods	51	18.0	65	19.2	+14(+1.2)
health function foods	69	24.4	72	21.3	+3(−3.10)
Total	283	100	338	100	+55(−0.1)

지(수출지)를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유통기한에 대한 고려도가 27.0%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 후에도 원산지(수출국)를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47.2%가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유통기한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39.3%로 교육 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Kim[14]은 식품 구입 시 표시사항 중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내용에 대한 조사에서 '유효기간과 제조일자'라고 응답한 사람이 60.3%로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며 Han[19] 등의 연구에 의하면 식품 구입 시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 소비자들의 식품 구입 시 유통기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가장 고려한다는 교육 전의 결과는 최근 문제가 되었던 멜라민 사건 등 수입식품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및 특정 국가에 대한 불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며 교육 전·후의 원산지(수출국)와 유통기한에 대한 고려 정도의 변화는 수입식품에 관한 소비자 안전관리 교육 중 올바른 수입식품 선택법을 통해 다양하게 표기된 유통기한 및 제조일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유통기한 확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소재에 대한 교육 전·후 소비자들의 인식도 변화를 Table 6에 나타냈다. 교육 전 응답자의 50.6%가 안전관리를 잘 하지 못한 우리 정부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생산한 외국 생산국 및 생산업자라고 24.7%가 응답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 후의 책임소재에 대해 안전관리를 잘 하지 못한 우리 정부라는 응답률이 47.2%로 조금 감소하였으나 교육 전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게 인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Bahk 등[20]은 식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소재에 있어 식품가공업자의 책임이 48.7%, 식품유통업자의 책임이 28%, 정부기관이 12.2%로 조사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Shim[21]의 연구결과에서도 식품오염 및 대책 등의 책임소재에 대한 인식에서 정부의 법적규제가 43.6%, 식품제조업체가 27.6%라고 응답하여 정부와 식품 생산업자의 책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 전 18.0%를 나타냈던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수입한 수입업자에 대한 응답률이 교육 후에는 39.3%로 우리 정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 중 안전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익을 위해 수입·판매하는 수입업자에 대한 보도 내용을 첨부하여 다룸으로써 올바르지 못한 수입업자들의 책임소재에 대한 인식도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을 통해 정부의 수입식품 현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을 이해하였으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수입식품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우리 정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5. The most concerned factor when purchasing imported foods

Frequency content	Pre-education		Post-education		
	frequency	%	frequency	%	
What is the most concerned subject when purchasing imported foods?					
origin of country	52	58.4	42	47.2	$x^2 = 8.591$ $df = 5$ N.S
expiration data	24	27.0	35	39.3	
import and distribution company name	5	5.6	9	10.1	
type of package	2	2.2	2	2.2	
price	4	4.5	0	0	
others	2	2.2	1	1.1	
Total	89	100	89	100	

Table 6. Awareness when safety problems occur in imported foods

Frequency content	Pre-education		Post-education		
	frequency	%	frequency	%	
Do you think who is the great responsibility when safety problems occur in imported foods?					
The individuals or businesses importing from foreign countries	16	18.0	35	39.3	$x^2 = 15.031$ $df = 3$ $p = 0.002$
Our government didn't know the safety management	45	50.6	42	47.2	
The manufacturing foreign countries and individuals	22	24.7	7	7.9	
The distributors didn't quick recall actions about problem	6	6.7	5	5.6	
Total	89	100	89	100	

$p < 0.01$

Table 7. The main concern for the safety supervision of imported foods

Frequency content	Pre-education		Post-education		
	frequency	%	frequency	%	
What is the priority to safety supervision on imported foods?					
junk foods targeted child consumers	21	23.6	26	29.2	
OEM foods	3	3.4	6	6.7	
foods from China	32	36.0	11	12.4	$x^2 = 16.197$
illegally distributed foods from foreign countries	16	18.0	29	32.6	$df = 5$
imported raw material of the processed foods	12	13.5	14	15.7	$p = 0.006$
imported agricultural foods	5	5.6	3	3.4	
Total	89	100	89	100	

$p < 0.01$

Table 8. Awareness about the ensure safety of imported foods

Frequency content	Pre-education		Post-education		
	frequency	%	frequency	%	
What is the priority of improvement on ensure safety of imported foods?					
management of illegally distributed foods	12	13.5	17	19.1	
establishment of a expiration data	0	0	9	10.1	
reinforcing an inspection of imported foods	44	49.4	33	37.1	
improvement of display system	5	5.6	6	6.7	
unified of food safety management	2	2.2	3	3.4	$x^2 = 17.074$
management of the manufacturing foreign countries and individuals	10	11.2	14	15.7	$df = 8$
reinforcing an punishments related to harmful imported foods	11	12.4	3	3.4	$p = 0.017$
reinforcing problem foods recall and distribution management	5	5.6	4	4.5	
Total	89	100	89	100	

$p < 0.05$

수입식품 중 우선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항목에 대한 교육 전·후의 인식도 변화는 Table 7과 같다. 교육 전 우선적 안전관리 항목으로 응답자의 36.0%가 중국식품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어린이 먹을거리와 불법 유통수입식품이 각각 23.6% 및 18.0%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중국산 수입식품의 부적합 사례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교육 후에는 응답자의 32.6%가 불법 유통수입식품을 가장 우선적으로 안전관리 해야 하는 항목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응답자의 29.2%가 어린이 먹을거리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모든 수입식품에 한글표시사항을 표기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러한 한글표시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수입식품은 불법 유통수입식품임을 교육 컨텐츠를 통해 습득한 후 한글표시사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안전한 어린이 먹을거리 확립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및 문구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글표시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식품 등 불법불량식품의 수거·검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점에 대한 교육 전·후의 인식도 변화는 Table 8에 나타냈다. 교육 전 응답자의 49.4%가 수입 시 검역 강화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 후에도 다소 감소하였지만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육 후 근거 있는 유통기한의 확립에 대한 응답률이 교육 전보다 10.1% 증가하였으며 불법 유통 수입식품 관리 및 현지 제조회사 조사에 대한 응답률 또한 다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OEM 식품을 포함한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 중 많은 제품들이 인건비 등을 포함한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위생상태가 취약한 생산시설을 갖춘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제조 혹은 수입된다[3]. 이러한 식품 중 올바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유통수

Table 9. Satisfaction of the imported food safety

Frequency content	Pre-education		Post-education		
	frequency	%	frequency	%	
The most recent imported foods increase and countries diversify, how much safe is the imported foods compared to the domestic foods?	3.47	1.43	3.50	1.64	$t = 0.167$ $df = 88$ N.S
Do you think government announcement on the imported foods safety information is enough?	2.61	1.53	3.52	1.73	$t = 4.041^{***}$ $df = 88$ $p = 0.0000$
How much do you satisfy for the imported foods safety supervision of the government?	2.76	1.59	3.37	1.58	$t = 2.810^{**}$ $df = 88$ $p = 0.006$
How much makes an efforts to the safety of imported foods when compared to the past activities of the KFDA?	4.13	1.56	4.15	1.70	$t = 0.091$ $df = 88$ N.S

$^{**}p < 0.05$, $^{***}p < 0.01$

입식품과 유통기한, 한글표시제도에 대한 인식도가 교육을 통해 향상되었으나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입 시 검역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수입식품 안전 만족도에 관한 교육 전후 변화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교육 전·후의 안전만족도 변화는 Table 9에 나타냈다. "최근 식품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수입국가 또한 다양화된 현실에서, 국산 식품과 비교하여 수입식품이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 한 경우 10점 만점에 교육 전·후 각각 평균 3.4, 5.46점으로 측정되었으며 교육 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체감지수가 증가한 것으로 측정되었다($P < 0.001$). 국제무역기구에서는 수입식품의 통관 시 검사를 간소화하고 유통 중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하지만 소비자들은 통관 전 수입식품의 정밀검사 강화를 요구하는 실정이다[22]. 또한 수입식품이 국내식품보다 안전하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보고 등은 없었으며 수입식품의 생산·제조과정의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여 수입식품 선택 시 소비자가 식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만족도 측정을 위해 "정부발표에서 제공되는 수입식품의 안전 정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10점 만점에 교육 전 3.47점으로 측정되었으며 교육 후 3.51점으로 교육 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귀하는 우리 정부의 수입식품안전관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10점 만점에 교육 전·후 각각 2.62, 3.53점으로 측정되어 교육 후 우리 정부의 안전관리 만족도가 증가하였다($P < 0.001$). 또한 "귀하는 과거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활동과 비교할 때, 수입식품의 안전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경우 10점 만점에 교육 전 2.76점, 교육 후 3.37점으로 증가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P < 0.005$). 교육 전 수입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최근 위해 수입식품 등의 발생으로 소비자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 후 안전관리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다양한 행사와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민들의 식품안전관련 행사 참여를 유도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올바른 국민의식 향상을 통해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08년(08052식품안070)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요 약

최근 수입식품물량증가,교역국및품목다변화로 수입식품에대한소비자의막연한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관리 소비자 교육 및 소비자 체감도 조사를 통해 수입식품 안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 추진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대생 89명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소비자 교육·홍보용 교육 컨텐츠 및 리플렛을 개발하여 교육하였으며 교육 전·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 전·후로 실시한 설문 중 교육 후 수입식품으로 인식하는 범위가 넓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수입식품을 구입할 경우 유통기한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정부발표에서 제공되는 수입식품 안전 정보의 충

분성과 수입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의 책임소재에 있어 교육 전에는 정부 관리와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생산하는 외국 생산국 및 생산업자에게 책임소재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교육 후 수입업자에 대한 응답률이 크게 증가하여 교육 전·후의 차이를 보였다. 수입식품 중 우선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 교육 전 '중국식품', 교육 후 '불법 유통수입식품' 및 '어린이 먹을거리'라고 답하여 어린이 먹을거리의 중요성과 불법 유통수입식품의 검역강화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점은 교육 전·후 모두 '수입 시 검역 강화'로 답해 수입절차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이에 따른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이 상존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문항에서 교육 전·후로 변화가 있었으며 교육 컨텐츠를 통해 수입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소비자들의 안전한 수입식품의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www.kfda.go.kr.
2. 장영수.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제고 방안. 보건복지포럼, **4**, 27-35 (2004).
3. Lee, H. H., Gang, G. L., Cho, B. S., Ha, D. R. and Kim, E. S.: A survey on the safety of the imported foods in Gwangju. J. Fd Hyg. Safety, **21**, 129-135 (2006).
4. Lee, K. A. and Kim, H. S.: Consumers' understanding and preference for shelf life and ingredient listings in food label. Korean J. Soc. Food Cookery Sci., **17**, 405-411 (2001).
5. Kim, H. C. and Kim, M. R.: A study for the purchase status of the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and consumers' recognition of the labelling for the country of origin in Youngnam region. Korean J. Dietary Culture, **12**, 477-493 (1997).
6. Mossel, D. A. A. and Drake, D. M.: Processing food for safety and reassuring the consumer. Food Technol., **44**, 63-67 (1990).
7. Lee, G. S. and Rhie, S. G.: A study on the some aspects of use of imported foods at the rural homes with the growing generation. Korean J. Dietary Culture, **10**, 465-474 (1995).
8. Kim, H. C. and Kim, M. R.: Analysis of the consumers' awareness and information need for food safety. Korean J. Dietary Culture, **17**, 153-164 (2002).
9. Han, I. J. and Kim, S. A.: Recognition level of imported food and its correlation with discrimination ability.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4**, 95-102 (1999).
10. Han, J. I. and Kim, S. A.: Recognition level of imported food and its correlation with discrimination ability.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4**, 95-102 (1999).
11. Choe, J. S., Chun, H. K., Hwang, D. Y. and Nam, H. J.: Consumer perceptions of food-related hazards and correlates of degree of concerns about food. J. Korean Soc Food Sci Nutr., **34**, 66-74 (2005).
12. 김태희. 중국산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입식품 검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정책보고서 (2006).
13. 정기혜. 중국산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 및 검사강화 방안. 보건복지포럼, **2**, 88-99 (2007).
14. Kim, H. J. and Kim, M. R.: Consumers' awareness and information needs towards fodd hygiene (I): Focused on pesticide residues. J. Korean Home Econ., **41**, 15-26 (2003).
15. Kim, M. H.: T도 safety of the domestic processed and imported food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4**, 629-631 (1999).
16. Jeong, Y. K.: Consumer information needs for development of the consumer information program. J. Korean Home Econ., **36**, 71-82 (1998).
17. Park, H. R. and Min, Y. H.: A basic research for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nutrition labeling. Korean J. Dietary Culture, **10**, 155-166 (1995).
18. Lee, H. Y.: A study on consumers' behavior relative to food's safety. MD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97).
19. Han, W. K. and Lee, J. G.: A study on the consumer recognition of food safety and food additives. Korean J. Soc Food Sci., **7**, 23-34 (1991).
20. Bahk, G. J., Kim, Y. C., Lee, H. S., Rho, M, J., Cho, Y. H., Lee, Y. H., Lee, K. M., Roh, W. S., Yang, J. H., Kim, J. S. and Lee, S. P.: A study on attitudes toward food safety issue in Korea-focus on the public official related to food hygiene. J. Fd Hyg. Safety, **14**, 34-44 (1999).
21. Shim, E. H.: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concerning food contamination and their food related behavior. M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1994).
22. 김영선. 수입식품의 안전성 관리체계. 보건복지포럼, **7**, 25-33 (2001).